

# 닭고기 · 계란

## 유통현황과 소비증대를 위한 고찰

윤 호 직  
 <건국대 축대교수>

### Ⅵ. 肉鷄 및 鷄卵의 소비구조分析

육계 및 계란의 수요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 요인으로서는 자체의 가격, 대체재의 가격, 소비인구,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및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이며 특히 인구나 소득 및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 요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과거 6년간(1965~1970) 서울시의 년 평균 인구증가율은 9.85%로서 전국 평균인구증가율 2.09%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동기간 서울시가 15.2%, 전국평균은 11.5%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체재의 가격변화가 닭고기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대체탄력성은 1.83으로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변화가 닭고기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의 수요탄력성은 1.55, 계란은 0.57로서 닭고기의 경우는 자기가격변화가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계란의 경우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관제를 나타내는 소득탄력성은 닭고기가 0.2, 계란이 0.71로 소득탄력성은 모두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소비관습에 연유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구 및 소득의 증가와 대체재의 가격안정화 및 소비자 기호의 변화로 계란 및

닭고기의 소비는 과거 10년간(1960~1970) 각각 3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계란 및 닭고기의 소비가 증대하여 왔으나 앞으로 우리나라 양계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계산물의 최종구매자인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수요증대 및 판매촉진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우리나라 식생활 Pattern은 총열량 2,600Cal로서 총단백질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이 현재의 17%에서 31~34%로 향상되고 영양소별 열량구성비는 탄수화물 74~76% 단백질 12.9%, 지방질 11.1~13.1%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닭고기 및 계란 소비자의 소비 Pattern, 기호, 구입동기, 나아가서 잠재시장 등을 파악하여 시장개척의 방안을 강구함은 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1. 調査家口의 肉鷄 및 鷄卵消費狀況

1969년도의 주요축산물별 소비실적은 쇠고기 33,133%, 돼지고기 76.086%, 닭고기 42,251%, 계란 2,362백만개, 우유 31,707%로 1965년에 비하면 쇠고기는 21.5%, 돼지고기 36.1%, 닭고기 및 계란은 약 3배, 우유는 약 4배가 증가되므로써 닭고기 및 계란과 우유의 증가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와같은 증가현상은 1970년대에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1972년에서 1981년까지의 닭고기 및 계란에 대한 농수산부의 수요추정에 의하면 표 6-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2

<표 6-1>

계육 및 계란수요

년 도	계			육	란		
	총 수 요	1인당소비량	전년대비		총 수 요	1인당소비량	전년대비
1970	43,800	1.377	—	백만개	2,559	77	—
71	49,600	1.530	13.2	...	2,685	79	4.9
72	54,266	1.677	9.4	113	2,799	83	4.2
73	59,218	1.803	9.1	123	3,079	90	10.0
74	64,474	1.934	8.9	132	3,366	97	9.3
75	71,193	2.104	10.4	143	3,662	104	8.8
76	77,379	2.253	8.8	152	3,999	112	9.2
77	85,602	2.458	10.6	168	4,452	123	11.3
78	94,712	2.682	10.6	178	4,945	135	11.1
79	104,636	2.925	10.5	196	5,490	148	11.0
80	117,411	3.240	12.2	215	6,086	162	10.9
81	131,749	3.589	12.2	235	6,732	177	10.6

자료: 축산진흥 장기전망(안) (1973~1981) 농수산부 축산국 1973. pp11~12

년도의 닭고기 및 계란의 수요추정량은 각각 54,266%과 2,799백만개인데 비하여 1981년도의 이들 수요추정량은 닭고기 13,749%, 계란 6,732백만개로서 1981년도의 수요증가는 1972년에 비하여 닭고기가 4배 계란은 3배의 수요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972년도 1인당 소비량은 닭고기가 1.677kg이고, 계란이 83개이나 1981년도에 가서는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이 3.589kg이고 계란은 177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가격이 현재의 협정가격에서 완전경쟁가격체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기호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소비형태가 개발된다면 닭고기의 수요는 보다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연령별 소비상황

연령별 육계 및 계란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계의 경우는 30~40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10~20세의 연령층이 그 다음으로 29.4%, 10세 미만의 연령층이 18.5% 20~30세의 연령층과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10.5%와 9.5%로 가장 적게 소비하고 있다.

이와같이 2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47%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발육기에 충분한 영양섭

<표 6-2> 연령별 연간소비량

년 령	육 계		계 란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구성비
10세 미만	684	18.5	53,711	27.1
10~20	1,087	29.4	62,431	31.5
20~30	388	10.5	16,252	8.2
30~40	1,187	32.1	50,540	25.5
40세 이상	351	9.5	15,261	7.7
계	3,697	100.0	198,195	100.0

주: 20~30세 계층에서 소비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양만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취를 하기 위해서이고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적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노쇠기에 계육소비는 혈압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관습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30~40세의 연령층에서 많이 소비하는 원인은 정력회복에 연유된 것이다.

한편 계란 소비현황을 보면 10~20세의 연령층은 31.5%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0세 미만의 연령층으로 27.1%이며 30~40세의 연령층은 25.5%이고 20~30세의 연령층과 4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닭고기와 같이 가장 적게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현황을 육계와 비교할 때 계란

의 경우 2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육계보다 높은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발육기의 영양섭취뿐만 아니라 도시락 반찬으로 계란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계의 소비는 30대에서 그리고 계란의 소비는 20대 미만에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2) 가족규모별 가구당 소비상황

가족규모별 육계 및 계란의 연간 평균소비량을 보면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닭의 경우 4인 이하의 가족은 연간 14.7kg, 5인 가족은 19.9kg, 8인 이상의 가족은 19.1kg으로

〈표 6-3〉 가족수별 조사가구당 연간평균소비량

구 분	육 계					계 란
	하이부 로일러	세미부 로일러	연 계	폐 계	계	
4인이상	kg 6.0	kg 3.6	kg 2.0	kg 3.1	kg 14.7	개 303.5
5	6.7	3.0	2.0	4.8	16.5	355.0
6	6.9	4.4	3.2	3.4	17.9	418.3
7	9.8	5.6	2.6	1.9	19.9	435.5
8인이하	8.3	4.7	3.5	2.6	19.1	358.8

로서 가족규모가 클수록 육계의 소비량도 증가되고 있으나 8인 이상의 대규모 가족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한편 육계의 종류별 소비현황을 보면 하이부로일러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그 다음이 세미부로일러, 폐계, 영계의 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규모에 따른 육계의 종류별 소비량도 폐계를 제외하고는 하이부로일러, 세미부로일러, 영계의 순으로 가족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량도 비례하여 증가하나 8인 이상의 가족만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계란의 소비량에 있어서도 4인 이상의 가족은 연간 303개의 계란을 소비하고 있으며 5인 가족은 355개, 6인 가족은 418개, 7인 가족은 435개, 8인 이상의 가족은 358개를 소비하므로써 8인 이상 가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

량도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육계와 계란의 경우 8인 이상 가족에 있어서 그 소비량이 가족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8인 이상의 경우 가족수에 비례한 육계나 계란의 소비는 가계비에 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3) 직업별 가구당 소비상황

직업별 육계 및 계란의 소비상황을 보면 육계의 경우 가장 많이 소비하는 호주의 직업은 교원으로 조사가구당 연간 소비량은 29.3kg이며 개인회사와 은행원이 각각 19.6kg과 14.1kg 공무원이 19.1kg을 소비하고 있음을 표 6-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가족이 육계의 소비량이 높은 것은 육계의 영양가를 충분히 인식한 뿐만 아니라 직업의 특성과 소득수준에 기인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6-4〉 직업별 조사가구당 연간평균소비량

구 분	육 계					계 란
	하이부 로일러	세미부 로일러	연 계	폐 계	계	
개인회사	kg 7.5	kg 3.1	kg 3.7	kg 5.3	kg 19.6	개 425.07
은행	11.3	1.6	3.0	3.2	19.1	610.42
공무원	6.7	2.7	1.7	3.0	14.1	335.6
교원	10.2	10.4	5.1	3.6	29.3	534.9
기타	9.2	3.8	2.6	2.8	18.4	347.5

한편 계란의 소비는 은행원 가족이 연간 610개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원가족으로서 534개, 개인회사원 가족이 425개, 공무원 가족이 가장 낮은 335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육계 및 계란 소비시장확대는 직업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 4) 계절별 가구당 소비상황

우리나라의 육계소비는 전통적인 소비관습에 의하여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육계의 소비가 연중 균분되어 있지 않고 어느 특정계절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표 6-5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이부로일러는 7~10월의 4개월에 전체 공급량의 47.7%가 소비되고 세미부로일러도 동기간에 47%가 소비되며 영계는 5~8월의 4개월간 46.9%가 소비되므로써 성수기는 공히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수요의 Peak는 하이부로일러가 7~8월에 세미부로일러는 9~10월에 영계는 5~6월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수요가 특정계절에 집중되므로 가격의 계절변동은 불가피하며 표 6-6에서

〈표 6-5〉 계절별 가구당 육계 및 계란소비량 (단위: %)

구분	월											
	1~2	3~4	5~6	7~8	9~10	11~12	계					
하이부로일러	6.0	13.8	20.3	26.0	21.7	12.2	100.0					
세미부로일러	7.0	9.8	19.0	23.4	23.6	17.2	100.0					
연 계	10.7	17.6	24.7	22.2	19.8	5.0	100.0					
계란	17.0	16.5	16.7	15.9	16.9	16.9	100.0					

보는 바와 같이 8월에 육계의 가격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1월에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써 연평균 가격확장은 21.8%에 달하고 있다.

〈표 6-6〉 육계가격의 계란변동 지수 및 진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평균	진 폭
계절지수	89.6	94.6	97.4	96.6	95.8	103.1	105.9	111.4	105.9	100.3	101.0	95.9	100	21.8

1968~1970년 3개년간 12개월 이동평균

그러므로 육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비관습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계란의 소비상황은 육계와 같이 그 소비가 특정계절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 수요가 연중 균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조사가구당 육계 및 계란 소비와 소득과의 관계

소득이 육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함은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육계와 계란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쇠고기의 수요의 소득탄력성계수는 서울이 2.539로 쇠고기의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고 전국인 경우는 1.226으로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육계의 경우 소득탄력성계수는 전국평균이 0.2023 계란은 0.7185로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육계의 전통적인 소비관습에 기인된 것이며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습이 지배하고 또한 육계의 소비 Pattern이 변화되지 않는 한 소득탄력성계수는 언제나 비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서울시민의 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의 내용을 보면 과거 7년간(1964~1970) 소비지출액과 식품소비구성은 크게 변화하였다. 1970년 현재 서울시민의 1인당 월평균 식품소비지출액은 3,937원으로서 1964년의 2,048원에 비하여 무려 92%가 증가하였는데 이 소비지출 가운데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964년에는 56%에 달하던 것이 1970년에는 무려 18%가 감소한 38%로서 식료품에 대한 지출액의 상대적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식료품에 대한 구성을 보면 곡류에 대한 지출비가 매년 서서히 감소한 반면 동물성단백질식품에 대한 지출액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동기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식료품비는 연평균 5% 증가한데 비하여 곡류에 대한 지출비는 연평균 4% 감소하였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지출비는 연평균 무려 15%와 14%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액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되나 단백질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므로 수요확대를 위하여 육류의 소비와 소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소득계층별 가구당 소비상황

육계 및 계란의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비탄력적(Inelastic)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당 육계 소비량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즉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평균 육계 소비량은 30,000원 이상의 가구가 4.9kg, 30,000~50,000원의 가구가 12.3kg, 50,000~70,000원 가구가 18.6kg, 70,000~90,000원의 가구가 22.9kg, 90,000~110,000원의 가구가 31.0kg, 110,000원 이상 가구는 44.2kg으로서 소득이 높은 계층일 수록 육계 소비량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되는 육계종류는 저소득층에서 영계나 폐계의 소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폐계나 영계보다 하이부로일러가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또한 계란의 소비상황을 보면 육계의 경우와 같이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절대적으로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110,000원 이상의 계층에서 계란 소비는 감소되고 있다.

〈표 6-7〉 소득계층별 조사가구당 연간 평균소비량

소득계층	구분					계란
	육		계			
	하이로일러	부세로일러	미부로일러	연계	폐계	계
	kg	kg	kg	kg	kg	개
30,000원 이상	2.0	0.5	1.0	1.4	4.9	160.0
30,000~50,000	5.3	1.4	2.2	3.4	12.3	259.8
50,000~70,000	6.8	4.9	2.8	4.1	18.6	396.0
70,000~90,000	11.1	5.0	3.7	3.1	22.9	476.4
90,000~110,000	16.5	6.4	4.6	3.5	31.0	549.9
110,000원 이상	24.8	9.4	5.9	4.1	44.2	537.1

주: 소득은 법정소득이므로 실질소득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110,000원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계란 소비 대신 타식품으로의 대체현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2) 소득계층별 1회 구입량

소득계층별 육계의 1회 구입량을 보면 30,000~70,000원의 소득계층은 1회에 1~2마리, 70,000~110,000원까지의 소득계층은 1~3마리, 110,000원 이상의 소득계층은 1~4마리를 구입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득계층의 차이에

의하여 닭 구입량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6-8에서 알 수 있다.

〈표 6-8〉 소득계층별 1회구입량

소득계층	육	계	계란
30,000원 이상	1~2마리		3~12개
30,000~50,000	1~2		5~19
50,000~70,000	1~2		7~33
70,000~90,000	1~3		9~30
90,000~110,000	1~3		11~45
110,000원 이상	1~4		12~49

한편 계란의 경우는 30,000원 이상의 소득계층이 1회 3~12개, 30,000~50,000원의 소득계층은 5~19개, 50,000~70,000원은 7~33개, 70,000~90,000원은 9~30개, 90,000~110,000원이 11~45개, 110,000원 이상이 12~49개로서 계란도 육계와 같이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1회 구입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계 거래단위는 미국과 같이 부위별 판매가 아니라 전부 마리로서 거래되므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부위별 판매 및 저소득층의 소량 구매가 불가능하므로 육계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부위별 판매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3) 소득계층별 육계의 구입형태와 도계방법

소비자가 닭을 구입할 때 4가지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즉 닭전에서 산 닭을 골라서 그 자리에서 도계한 것을 구입하거나 현대적인 도계공장에서 이미 도계되어 냉동되거나 냉동되지 않은 닭을 구입하거나 또는 이미 도계되어 전기구이한 닭을 사거나 산 닭을 구입하여 집에서 도계하는 방법등 구입형태가 선진국과는 달리 다양화되어 있다.

조사가구에 의하면 전체구입량의 64%는 닭전에서 산닭을 골라 그 자리에서 도계한 것을 구입하고 있으며 13%만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도계장에서 위생적으로 도계된 닭을 구입하고 13%는 닭을 생체로 구입하여 자가도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표 6-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6-9〉

소득계층별 닭 구입방법

(단위 : %)

구입방법	닭전에서 산 닭을 팔라 그 자리를 보고 산다.	산 닭을 시장에서 보고	위생적으로 도계되어 냉동된 닭을 산다.	공창장에서 이미 도계된 닭을 산다.	시장안에 있는 닭집에서 산 닭을	시장안에 있는 도계장에서 산 닭을	기	타	계
소득계층									
30,000원 이상	65.0	10.0	10.0	15.0	—	100.0			
30,000~50,000	70.9	7.7	7.7	12.0	1.7	100.0			
50,000~70,000	75.6	6.7	7.6	10.1	—	100.0			
70,000~90,000	76.3	10.5	5.3	7.9	—	100.0			
90,000~110,000	71.2	10.2	5.1	10.2	3.3	100.0			
110,000원 이상	64.5	12.9	9.7	12.9	—	100.0			

이와 같은 구입형태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110,000원 이상의 계층은 산 닭을 골라서 그 장소에서 도계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산 닭을 구입하여 자기 집에서 도계하는 비율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도계되어 냉동된 닭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전근대적인 도계과정이 비위생적이며 냉동된 닭에 대한 기호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별 도계방법을 보면 표 6-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평균 자가도계의 비율이 30.9%이고 위탁도계의 비율이 69.1%이나 30,000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110,000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자가도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가도계를 가능케 하는

〈표 6-10〉 소득계층별 도계방법 (단위 : %)

소득계층	자가도계	위탁도계	계
30,000원 이상	38.2	61.8	100.0
30,000~50,000	33.0	67.0	100.0
50,000~70,000	30.0	70.0	100.0
70,000~90,000	27.4	72.6	100.0
90,000~110,000	23.6	76.4	100.0
110,000원 이상	45.8	54.2	100.0
평	30.9	69.1	100.0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내의 전근대적인 도계가 비위생적이라는 데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오늘날 각 시장내에 산재하여 있는 전근대적이며 비위생적인 위탁도계를 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일반소비자가 현대적인 도계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도계된 닭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기인된 현상이므로 이

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치킨센터에서 전기구이한 닭을 구입하는 현황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00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연간 2~3마리 30,000~50,000원의 계층에서는 5~6마리 50,000~70,000원의 계층은 7~8마리로서 이 들은 연간 총 닭구입량중 각각 7.1%, 9.1%, 17.0%를 차지하며 소득계층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연간 구입량도 증가하고 닭 총 구입량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

〈표 6-11〉 치킨센터에서의 구운닭 구입량

소득계층	연간구입량	연간총구입량중비율
30,000원 이상	2~3마리	7.0%
30,000~50,000	5~6	9.1
50,000~70,000	7~8	17.0
70,000~90,000	10~11	21.3
90,000~110,000	13~14	19.7
110,000원 이상	18이상	18.4

나 90,000원 이상의 계층은 이들의 연간 구입량은 증가하나 총구입량중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같은 새로운 닭의 소비형태를 통하여 많은 닭을 소비할 수 있었다는 현상은 전통적인 소비관습을 해소하고 소비의 계절적인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닭의 소비형태를 통하여 닭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